



남원 도동동, 노인 목욕비 지원 바우처카드 신청

남원시 도동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소신자)는 2월 5일부터 70세 이상 도동동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는 어르신들에게 노인 목욕비 지원사업 바우처카드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목욕권은 남원시에 주소를 둔 70세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나 장기 요양 등급자, 시설 입소자, 미거주자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기존에 상·하반기 두 번 나눠서 지급되었던 종이 목욕권보다 분기별로 자동 충전되는 바우처카드 도입으로 어르신들의 목욕권 사용이 더욱 편리해졌으며, 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서와 개인정보 동의서를 작성하면 된다. 한 어르신은 “기존의 종이 목욕권보다 훨씬 사용이 편리할 것 같다며 목욕비를 지원받아 감사하다”라고 말했다. 한편 소신자 도동동장은 “어르신들이 건강하고 활기찬 노년 생활을 보내시는 데 남원시에서 아바지할 수 있어서 감사하며, 앞으로도 어르신들이 더 좋은 복지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은행, JB어르신 문화센터 제18호·19호 오픈

JB금융그룹 전북은행(은행장 백종일)은 전주 서호2차경로당과 우성여자경로당에서 ‘JB어르신 문화센터’ 제18호, 제19호 오픈식을 각각 실시했다고 10일 밝혔다. 서호2차경로당은 오래된 식탁 이용에 불편함이 크고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의자 또한 많이 부족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전북은행은 식탁세트, 거실TV장, 등받이 의자 등을 지원해 노후화된 생활환경을 개선했다. 우성여자경로당은 어르신들의 체구에 맞지 않는 오래된 소파와 좌식식탁, 성능이 저하된 가전제품 등의 교체가 필요해 지원 대상으로 선정됐으며 전북은행은 식탁세트, 소파, 가스레인지, 냉장고 등을 지원해 편리한 환경을 조성했다. 오픈식에는 전주시의회 남관우 의장, 최지은 의원, 전북은행 오현권 부행장, 조인성 전주시정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오현권 부행장은 “초고령 사회를 앞두고 노인복지시설 환경 개선을 통해 어르신들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하는 사업이 큰 호응을 얻고 있어 뜻깊게 생각한다”며 “앞으로도 아동·노인·다문화 등 여러 대상을 위한 지속적인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며 누구에게나 따뜻한 금융을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이만호 기자



남원 산동면, 찾아가는 경로당 간담회

남원시 산동면 행정복지센터는 새해를 맞이하여 면장이 직접 지역 경로당을 방문해 면민들과의 소통의 장을 마련하였다. 이번 방문은 2월 7일부터 18일까지 이루어지며 면민들에게 새해 인사와 함께 주요 사업 및 시정을 집중 홍보하였다. 특히 중앙경찰학교 후보지 선정과 연중 추진되는 각종 행사를 홍보하며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여 지역의 활기를 더할 계획과, 보조금 지원 사업을 포함한 다양한 정책과 사업에 대해 주민들에게 직접 안내하고, 평소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지양근 산동면장은 “경로당 방문은 면민들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중요한 기회이며, 특히 면민의 일상에 도움이 되고 필요한 사업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민들이 직접 체감하는 행정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오남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김관영 도지사, 순창 인계면 한 가정 다섯째 아이 탄생 축하인사 전해

도내에서 올해 들어 첫 다섯 번째 다둥이 가정이 탄생해 전북특별자치도 지사가 축하인사를 전하러 직접 찾아 나섰다.

전북자치도는 김관영 도지사가 지난 4일 순창군 인계면 정모씨(35, 여)가 119 순창구급대의 도움을 받아 다섯 번째 아이를 건강하게 출산하게 된 소식을 전해 듣고, 산모와 가족들에게 축하의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 방문했다고 10일 밝혔다.

김관영 도지사는 “전북특별자치도의 큰 축복인 새로운 생명의 탄생을 축하하고 응원의 말씀을 드리고자 찾아왔다”며 “다섯 번째 아기를 비롯해 오남매들이 건



강하고 행복하게 성장하길 기원한다”고 말했다. 또한 김 지사는 “앞으로도 도내 곳곳에서 아기 울음소리가 끊이지 않도록, 건강한 임신과 출산, 양육 환경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특별자치도는 출산 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다양한 지원 정책을 추진 중이다. 육아용품 지급, 첫만남이용권, 산후 건강관리비 지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 등을 통해 임신과 출산에 대한 부담을 덜고 있다.

/순창=이양원 기자

장수교육지원청, 2025 교육계획 설명회 개최

장수교육지원청(교육장 추영곤)은 10일 관내 유초중등 교직원들을 비롯해 학부모 및 유관기관 업무담당자 등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5 장수교육계획 설명회를 개최했다. 특히 이번 설명회에는 장수학생회의 회원 10명도 함께 참석해 눈길을 끌었다.

교육장 인사발령, 교원 인사동정 소개에 이어 정소영 교육지원과장이 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을 통해 실력과 바른 인성을 기르는 전북교육에 발맞춰 2025 장수교육 기본방향 및 중점 추진과제 등을 알렸다. 특히 2025년에는 미래역량 신장을 위한 디지털 수업혁신, 문해력 강화를 위한 맞춤형 독서교육, 공동체성 함양을 위한 문화다양성교육 및 생태전환교육, 자치와 협력의 조화를 위한 지역사회와의 협력 등을 지원하겠다고 설명했다.

추영곤 교육장은 “동행하며 성장하는 행복한 장수교육을 위해 모두가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하며 “학교 현장은 물



론 가정에서도 학생(자녀)을 중심에 두고 적극 힘을 보태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순창농협, 농협생명 월납보험료 1억원 달성탑 수상

농협생명 전북총국(총국장 지광수)은 10일 순창농협(조합장 김성철)이 2025년 농협생명 보장생활납보험료 1억원 달성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순창농협은 1월 전북농협에서 생명보험 보장생활납보험료 1억원을 가장 먼저 돌파하며 전년도 생명보험 연간 사업성과를 단 12영업일 만에 이뤄내는 놀라운 성과를 거뒀다.

이날 전북총국 지광수 총국장은 순창농협을 방문해 김성철 조합장에게 달성패를 전달하고 순창농협 임직원들과 함께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는 순창농협이 2023년 전국 농협에서 생명보험 추진실적이 가장 우수한 사무소에 주어지는 제36회 농협생명 연도대상을 수상한 후 2년만의 쾌거로 순창농협의 지속적인 성장세를 보여주는 성과이다.

순창농협은 조합원 복지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최우선으로 하는 경영 방침과 임직원의 지속적인 역량강화를 통해 이 같은 성과를 이뤄냈다는 평가이다.

김성철 조합장은 “우리 농협은 활발한 조합원 환원사업을 통해 2024년 범농협 사회공헌상을 수상한 바 있다”며 “앞으로도 우수한 영업 마케팅을 통한 이익의 성장세는 물론 조



장수소방서, 비응급환자 119신고 자체 당부

장수소방서(서장 한동규)는 비응급환자의 119신고 사례가 꾸준히 증가함에 응급환자의 골든타임을 지킬 수 있도록 비응급환자의 119구급차 이용을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단순 비응급환자 및 허위신고로 출동한 경우 소방력의 공백이 생길 수 있고 그사이 응급환자가 발생할 경우 이송 지연으로 인해 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0조)에 따르면 비응급환자로 분류되는 경우는 △단순 주취자 △단순 치통 △단순 감기(38℃이상의 고열 또는 호흡곤란이 있는 경우 제외) △단순 타박상 △만성질환자의 정기검진 및 입원목적 이송 등이다.

한동규 소방서장은 “비응급 신고로 인해 긴급한 상황인데도 신속 대처를 못해 자칫 소중한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응급환자가 아니라면 119신고를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장수=고관호 기자

정읍시,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 본격 시행

이제 주민등록증도 스마트폰으로 확인할 수 있다. 정읍시가 오는 14일부터 모바일 주민등록증 서비스를 본격 시행한다.

이번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으로 정읍시를 포함한 전북특별자치도 전역에서 동시에 도입되며 주민들이 스마트폰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신분증을 확인하고 사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 명의의 휴대전화에 저장되며 모바일 앱을 통해 신분 인증이 가능하다. 실물 주민등록증과 동일한 법적 효력을 갖춰 온·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지갑 없이도 간편하게 신분 확인이 가능해진다.

발급 방식은 IC 주민등록증을 활용하는 방법과 QR코드를 이용하는 방법 중 선택할 수 있다. IC 주민등록증을 통한 발급 시 수수료는 1만원이 부과되며 QR코드를 이용한 발급은 무료다. 유효기간은 3년으로 만료 후 IC 주민등록증 또는 QR코드를 통해 재발급받을 수 있다.

모바일 주민등록증 신청은 2월 14일부터 3월 27일까지는 주민등록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만 가능하며 3월 28일부터는 전국 행정복지센터 어디에서나 신청·발급이 가능해진다.

시 관계자는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으로 시민들의 행정 편의성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스마트 행정을 통해 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는 다양한 서비스를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읍=김대환 기자



이미정 농협 고창군지부장, 2036 하계올림픽 유치기원

NH농협 고창군지부 이미정 지부장은 10일 2036 하계올림픽 전북 유치를 기원하고,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GBCH 챌린지 에 동참해 힘을 보탰다.

GBCH는 ‘모두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조화’라는 뜻을 갖고 있으며, 올림픽 유치를 위한 지역주민의 지지와 참여를 확산하고자 하는 범도민 캠페인이다.

조만규 의장의 지목을 받아 챌린지에 동참한 이미정 지부장은 “2036 하계올림픽이 전북에서 유치 될 수 있도록 지역 주민 모두가 한 뜻 한 마음이 되어 힘을 모아 달라”고 밝혔다.

한편 이미정 지부장은 다음 참여 주자로 전북신용보증재단 한종관 이사장, 한국농어촌공사 고창지사 임근춘 지사장을 추천했다.

/고창=김영식 기자



전북농협, 고향주부모임 등 정월대보름 오곡밥 나눔

전북농협(총괄본부장 이정환)은 (사)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회장 김경덕), (사)농가주부모임전북도연합회(회장 김미자)와 함께 10일 농협전북본부 1층에서 정월대보름맞이 오곡밥 나눔 행사를 실시했다.

정월대보름을 맞아 1천개의 오곡밥을 준비하였으며 이번 행사를 통해 전북관계 취약계층을 위한 나눔을 실천하는 의미로 회원들이 직접 오곡밥을 관내 시·군 홀몸 어르신들에게 전달하는 등 이웃사랑 실천 사회공헌활동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이정환 총괄본부장은 “지나해 이상기후로 인한 폭염, 폭우 속에서도 농업·농촌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봉사에 임해주신 고향주부모임과 농가주부모임 회원님들에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올 한 해도 전북농협은 회원들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고 지역사회의 고민을 함께 해결할 수 있는 동반자 역할에 충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사)고향주부모임전북도지회와 (사)농가주부모임전북도연합회는 여성농업인의 사회참여활동을 통해 농업·농촌에 활력을 불어넣고 있으며 농촌생활개선사업, 지역사회 봉사활동, 밀반찬 나눔봉사, 농촌일손돕기, 다문화가정의 안정적인 농촌 정착을 위한 지원사업 등 농촌 소외 및 취약계층을 위해 여성 특유의 섬세함으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이만호 기자



KCC, 완주군에 이웃돕기 성금 4000만원 기부

(주)KCC(대표이사 정몽진)가 완주군에 어려운 이웃을 위해 써달라며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4,000만 원을 기부했다.

10일 전달식에는 유희태 완주군수, 문병원 (주)KCC 전주공장장을 비롯해 김대원 관리수석, 김우중 서무팀장, 노진선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무처장, 양효경 모금사업팀장 등이 참석했다.

완주군 봉동읍에 위치한 (주)KCC는 건축자재, 도로 및 실리콘 등을 생산 판매하는 초일류 정밀화학기업으로 건축산업 자재의 공급을 통해 한국 건축산업문화의 발전을 선도하고 있다.

2024년에도 이웃돕기 성금 5,000만 원을 기탁하고, 관내 저소득층 6세대에 ‘술으로 따뜻한 집만들기’ 주거환경 개선사업을 추진하기도 했다.

문병원 (주)KCC 전주공장장은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온정을 나눌 수 있어 기쁘다”며 “앞으로도 적극적인 사회공헌 활동으로 지역과 더불어 상생하는 기업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유희태 완주군수는 “매년 큰 성금으로 이웃들에게 보탬이 되어주셔서 감사하다”며 “(주)KCC의 소중한 마음이 도움이 필요한 분들에게 잘 전달되도록 하겠다”고 인사를 전했다.

/완주=염재복 기자